

2008 함께라서 좋아요

(5) 음악가족 임영만씨네

“딸들과 함께 음악 한 길... 행복합니다”

호신대에서 교회 음악을 가르치고 있는 임영만(63) 교수네는 행복한 음악 가족이다.

임씨네 가족은 피아노를 전공한 리라(35)씨, 바이올린을 전공한 소라(33·독일 거주)씨, 비올라를 전공한 아름(28·독일 거주)씨와 교회 성가대 지휘를 맡고 있는 부인 박경희(61)씨까지 '음악'이라는 공통 분모를 갖고 있다.

지난해에는 독일 등에서 활동중인 테너 안갑열(43)씨를 만나위로 맞아들이는 경사를 맞았다. 임씨 부부는 내심 음악을 하는 사위를 맞았으면 했다. 하지만 두 딸이 독일 유학중 만난 공대생들과 결혼, 꿈이 깨지나 싶었는데 가장 늦게 결혼한 큰 딸 리라씨가 소원을 풀어준 셈이다.

광주에 살고 동창인 세 자매는 모두 독일에서 유학생활을 했다. 리라씨는 하이델베르크 만하임 국립 음대에서, 소라씨와 아름씨는 자르브뤼켄 국립 음대와 라이프찌히 국립 음대에서 수학했다.

임씨 부부는 첫째 리라씨가 1994년에 독일로 떠난 후 2006년 막내딸 아름씨가 유학을 마칠 때까지 꼬박 12년을 아이들 뒷바라지에 전념했다. 잘못하게도 세 사람이 같은 시기에 독일에서 공부한 적은 없었기 때문에 가계 부담을 조금 덜기는 했지만 그 사이, IMF 시절까지 겪었으니 힘들기는 마찬가지였다.

“악기 구입비며 레슨비며 이런 것 따지면 세 아이를 모두 음악가로 키운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죠. 하지만 어려서 부터 연주하는 걸 참 좋아하는 아이들을 보고 꿈을 이뤄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세 명을 다 유학 보낸 걸 두고 주변에서는 대단하다고들 하지만 부모 입장에서 아이들이 다들 원하는데 누구는 유학 보내고, 누구는 보내지 않을 수 없었잖아요.”(임영만)

박씨가 아이들 음악 교육 시키며 가장 행복했던 시간은 리라씨가 만하임 국립음대에 합격했을 때였다. 마음이 놓이지 않아 리라씨와 독일까지 동행했던 박씨는 아직도 입학시험을 앞두고 연습을 위해 매일 새벽 5시30분이면 혹독한 추위 속에 집을 떠나던 리라씨의 뒷모습이 떠오른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교회음악을 가르치는 임영만 교수의 세 딸은 각각 피아노와 바이올린, 비올라를, 만사위는 성악을 전공했으며 부인은 성가대를 지휘하고 있다. 박경희·안갑열·임영만·임리라씨(사진 왼쪽부터 시계방향) /위탁기자 jrwi@kwangju.co.kr

세 딸 모두 독일 유학... 지난해 성악가 만사위 맞아 부인은 성가대 지휘... 내년엔 정년퇴임기념 연주회

지역의 유일한 교회음악이론 전문가로 매년 관련 논문을 발표하는 등 학구열을 불태우고 있는 임 교수는 올해도 연구 성과를 내놓으며 교직 생활을 차분히 정리할 계획이다.

리라씨는 광주시립합창단 반주자 역할과 함께 건반을 사랑하는 사람들 등 관련 단체 활동도 열심히 할 계획이며 독일과 이탈리아 에이전시 소속인 안씨는 올해 절반 이상 해외 오페라 무대에 설 계획이다.

제독한인오케스트라 단원 등으로 활동했던 소라씨와 아름씨는 현재 결혼과 출산 등으로 잠시 휴식기를 갖고 있는 상태로 조만간 연주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두 딸과는 떨어져 있지만 같은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도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의지가 되죠. 아이들이 아무리 커도 부모는 늘 자식들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이 분야를 잘 아니까 때문 매니저 역할도 해야겠구요(웃음).”(임영만)

임신중인 소라씨가 비행기를 탈 수 없어 지난 2006년 임씨의 회갑 축하연주회를 취소했던 세 자매는 내년 임씨의 정년퇴임 기념연주회를 가질 예정이다. 세 딸의 트리오 연주에, 안씨의 중후한 목소리까지 더해질 참이니 축하상은 오히려 풍성해질 듯하다. <끝>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그림 앞에서 울어본 적 있나요?

미술사학자 엘킨스 '그림과 눈물'...미술품 감상 벅찬 감동 글 모아

“그림 앞에서 울어 본적이 있는가” 미국의 미술사학자인 제임스 엘킨스(시카고 아트 인스티튜트 교수)는 늘 이 점이 궁금했다.

그는 신문과 잡지 등에 ‘그림 앞에서 울어본 적 있는 경험담을 들려 달라’는 광고를 냈고, 미국 각지에서 400여 명으로부터 메일을 받았다.

이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로스코의 ‘적갈색 위의 검정’(1959년)에서부터 카라바조의 ‘젊은 바쿠스’(1593~98년), 바티스트 ‘죽은 새를 애도하여 우는 소녀’(18세기 후반), 디라코 바우츠의 ‘울고 있는 마돈나’(1460년대)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는 경험을 들려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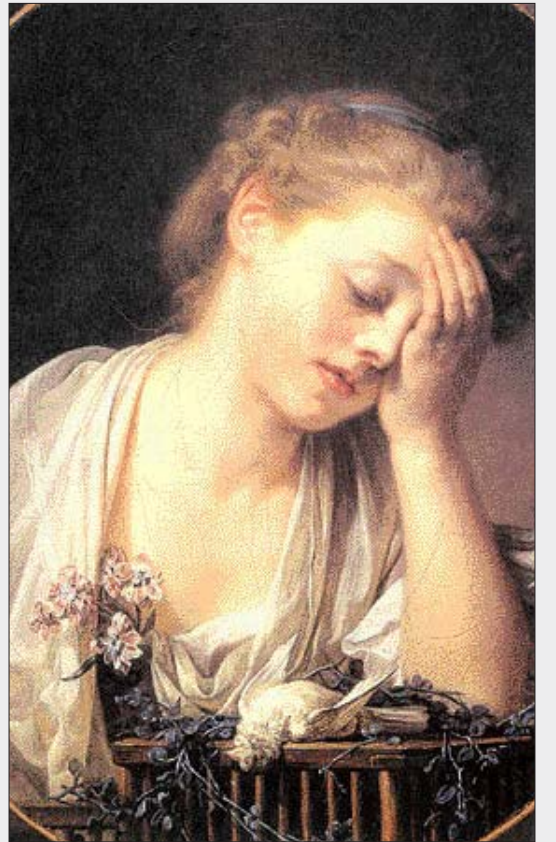
2년동안 진행된 이 작업을 통해 그는 최근 ‘그림과 눈물’(원제 Pictures & Tears·아트북스)라는 책을 냈다.

그에게 사연을 보낸 사람들은 ‘그림은 물론 캔버스에 천을 고정하는 못에 감동을 받거나’ ‘그림 앞에서 우는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며,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지 않아도 되는 길’이라고 털어놓았다.

비록 작품의 시대와 내용은 다르지만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모두 자신이 왜 울었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했지만 그림 앞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린 경험은 그 어떤 행복보다도 강렬했다는 것이다.

저자는 눈물이 메마른 오늘날, 공허한 지적 교양이나 형식적인 고상함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그림과 마주하라고 조언한다. 가슴으로 작품을 감상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는, 가슴 벅찬 행복한 체험을 경험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그는 그림을 보고 울고 싶으면 ▲미술관



바티스트 작 '죽은 새를 애도하여 우는 소녀'

에는 혼자 가라 ▲모든 것을 보려고 노력하지 마라 ▲집중력 분산을 최소화하라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라 ▲안전한 주의를 기울여라 ▲스스로 생각하라 ▲진정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보라 ▲충실하다고 당부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인간 존재에 대한 의문

나명규展 10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양산동 갤러리

모든 공기를 빼내 내용물을 압축하는 '비닐 압축 팩'에 사람이 갇혀있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 한겨울 누군가를 따뜻하게 데워준 뒤 주글주글하게 구겨져 남은 계절을 보내야 하는 솜이불처럼 내 몸이 진공 상태의 비닐 팩에 담겨있다면...

설치 작가 나명규씨가 인간 존재에 대해 의문을 던지는 '존재-composition'전을 10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양산동 프리젠테이션 갤러리에서 연다. 나씨는 끊임없이 '존재'의 의미를 영상매체 등을 통해 표현하고 있다.

이번에 전시된 작품은 신체의 일부

를 비닐 압축 팩을 담아 보여주거나 모니터 안에 갇혀 있는 몸을 영상으로 표현했다.

비닐 압축 팩에 담긴 옷 위로 벌거벗은 남자의 모습을 새긴 15점의 작품을 벽과 바닥에 설치했다.

또 온통 파란빛의 모니터 안에 갇힌 남자의 뒷모습이 실루엣으로 처리된 6점의 영상 작품들은 애처로운 느낌을 준다.

조선세 조소과와 미국 뉴욕대 대학원을 졸업한 나씨는 제10회 광주미술상(2004년), 하정웅 청년작가상(2003년), 무등미술대전 대상(1992년)을 수상했고 광주비엔날레-에코



'존재'

메트로, 디지털 영상그룹 VIEW전 등에 참여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아트플러스 영화 관람권' 발행

영화문화의 다양성을 위해 문진 전국 아트플러스시네마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가 8일 '아트플러스 영화관람권'(사진)을 발행했다.

이 관람권은 광주극장, 서울 미로스페이스, 대구 동성아트홀, 대전아트시네마, 부산 국도예술관, 인천 영화공간 등 전국의 네트워크 상영관 14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관람권 10장(1장당 7천원)을 패키지로 구입할 경우 1장이 무료로 제공되며 발행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구입은 광주극장을 포함한 전국 14개 상영관에서 가능하다.



한편 네트워크는 오는 31일까지 홈페이지(www.artplus.or.kr)에 예술영화 리뷰를 올린 관객들을 대상으로 100명을 선정, 관람권을 증정하는 출시기념 이벤트도 진행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광주미술관회 신년 미술관 투어

(사)광주미술관회(회장 김응서)가 오는 12일 서울시립미술관의 '고흐'전, 환기미술관의 '신사실과

60주년 기념'전을 관람하는 신년 미술관 투어를 떠난다.

'고흐'전은 네덜란드의 반 고흐 미술관과 크를러-펠러 미술관으로부터 엄선한 유화작품 45점과 드로잉 및 판화작품 22점, 총 67점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회에는 '꽃' '자화상' '씨뿌리는 사람' '사이프러스가 있는 길' 등 반 고흐 예술의 진수를 보여주는 걸작들이 전시된다. '신사실과...'전은 근대 미술의 대표 작가인 김환기, 유영국, 이규상, 장욱진, 이종성, 백영수 화백의 작품이 전시된다. 참가는 누구나 가능하며 성인 3만원, 청소년 2만원의 관람료를 내야 한다. 문의 062-223-9200.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Happy Time 영화안내 banner with movie posters and text.

메가박스 Megabox advertisement listing movies like 'P.S. I Love You' and '기다리다 미쳐'.

엔터시네마 Enter Cinema advertisement listing movies like '나사랑' and '기다리다 미쳐'.

컬럼버스시네마 Columbus Cinema advertisement listing movies like '나사랑' and '기다리다 미쳐'.

씨너스전대 Cinears Theater advertisement listing movies like '나사랑' and '기다리다 미쳐'.

무등극장 Mudeung Theater advertisement listing movies like '나사랑' and '기다리다 미쳐'.

제일시네마 Jeil Cinema advertisement listing movies like '나사랑' and '기다리다 미쳐'.